

	<h1>보 도 자 료</h1> <p>제공일 : 2025년 5월 21일 사 진 : 포함 (3매)</p>	작성과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담당 부서	과 장: 정상태 팀 장: 이정묵 담당자: 김시현
		연락처	061)830-5032

고흥군의회, 미래의 주역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 성황리 개최

- 녹동중학교 학생 대상, 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의회 이해 돕기
- 청소년이 직접 말하고 제안하는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5월 20일 녹동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1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모의의회는 녹동중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의장, 의원, 사무과장 등 역할을 맡아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질의·답변,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7명의 학생 의원들은 '편식을 줄이자', '차별을 차이로 바꾸는 사회를 만들자', '학교폭력 예방', '학생들의 지나친 비속어 사용 문제', 'SNS 중독 문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자' 등 다양한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학생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진 가운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청소년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덧붙여 “학생들이 제안한 조례안과 발언 내용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동중학교 관계자 또한, “학생들이 실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를 발의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다루었던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등을 지역 청소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제 교육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청소년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다음 제2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5월 28일 고흥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